

작가노트

이선경

거울을 본다. 어색하게 쌍꺼풀진 눈, 군데군데 박혀있는 주근깨들, 그리고 피곤하고 지친 눈빛. 헛바닥을 스윽 내밀어 본다. 다르다. 좀 전과는 다른 사람이 거울 속에 있다. 지금 나를 보고 있는 이 사람은 내게는 무척이나 익숙하면서도, 그와 동시에 너무나도 낯설다.

하루에도 수십 수 만 번씩 나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만 같다.

착하거나, 사악하거나, 혹은 순진하거나 음흉하거나, 들여다보면 볼수록 저 아래 깊숙한 곳에는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불쑥불쑥 나타났다 사라진다.

나의 얼굴그리기는 이런 내 자신에 대한 혼란과 두려움, 처절한 자기혐오와 자아도취에서 비롯되었다. 친절함과 불편함, 선과 악을 오가며 상대방의 뒤통수에 악마 같은 미소를 비수처럼 꽂아놓는 나의 얼굴은 명실상부한 모순의 형태인 것만 같다. 다중인격의 결정판인 것만 같다.

내 작업에 등장하는 얼굴들은, 꽃을 꽃고 있거나, 혹은 그 속에 파묻혀 있거나, 두 눈이 연필, 또는 물...그 밖의 어떤 것들로 인해 지워져 있거나, 화면 밖의 누군가를 꽤나 불편하게 바라보고 있다.

나의 인물들에게 있어 '눈'이란 것은 바라본다는 의미 외에 자기혐오와 자기연민, 애증의 감정을 증폭시켜 보여주는 도구인 것과 동시에 내면에 숨어있는 불안감을 표현한다.

화면의 꽃과 식물(?)들은 얼굴의 눈과 함께 복잡한 감정선 들을 나타내고 있다. 그들은 아름답지도 탐스럽지도 않다. 얼굴 들을 파묻히게 만들어 버리는가 하면 뒤엎켜 버린 꽃술들은 얼굴을 잠식해 들어간다.

과거의 작업들에 등장하는 꽃과 식물들이 조금쯤은 수동적인 모습이었다면 지금은 그와는 상반되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나에게 있어 그들은 또 다른 얼굴인 셈이다. 나의 얼굴들은 관자에게 친절하지는 않다.

오히려 보는 이들을 불편하게 만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몸속에서 불쑥 튀어 나오는 얼굴이, 등 뒤에 마치 후광처럼 둘러 쌓여있는 얼굴들이 단순한 자화상이 아닌 타자의 욕망과 불안을 투영하는 거울이 되었으면 한다

나의 작업은 그 시점 에서 . 더욱 생명력을 얻을 것이기에.